



# 한국어나운서클럽회보

2013년 12월 15일

제 12 호

• 발행인 : 김동건 • 편집장 : 황인우  
• 주 소 :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3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어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2-784-5040 / 070-7501-3842



2014인천아시아게임 9.19-10.4

## ‘생생하게 전하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3인방 인천AG 위해 손발 맞춰



손상진(전 KBS) 인천AG조직의 미디어본부장



김성길(전 KBS) 주관방송운영사 IHB 대표



김호준(전 MBC) IHB 스포츠 중계 CP

내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펼쳐질 2014 인천아시아게임을 앞두고 아나운서 출신 3인방이 인천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인천AG조직위원회 미디어본부장으로 임명된 손상진(전 KBS) 회장은 테스트 이벤트로서 6월 29

일부터 7월 6 일까지 열린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16일간 47개 경기장 36개 종목 중계 실내&무도(武道)아시아게임을 매끄럽게 이끌었다.

또한 지난 5월 KBS와 MBC가 한시적으로 주관방송 운영을 위해 설립한 유한회사 IHB (Inchen Asian Games Host Broadcasting Management)에는 김성길(전 KBS) 대표가 양궁, 복싱, 탁구, 태권도 등 7개 종목의 김호준(전 MBC) CP 등을 비롯한 30여 명의 스포츠 PD들과 엔지니어 등을 이끌고 있다.

12월 4일 강화종합전시관 회의실에서 열린 합동 워크숍에서 한자리에 모인 세 사람은 “오늘도 경기 일정 등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1월에 송도에서 개최되는 세계방송회의(WBM)를 분야별로 점

검했다. 앞으로도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홍콩, 카타르 등 40억 아시아인에게 2014인천아시아게임을 생생하게 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인천아시아대주경기장에서 펼쳐질 개·폐막식을 비롯해 16일간 47개 경기장에서 개최될 36개 종목의 중계를 위해 지상파 3사의 역량까지 총동원될 2014인천아시아게임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인천AG조직위원회 손상진 미디어본부장은 1977년 KBS에 입사해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 전문 프로듀서,

2002월드컵 및 부산 아시아게임 방송기획단 주간, 스포츠국장을 지내고 2008년 정년퇴직했다. 손 본부장은 그 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운영본부장 및 미디어국장, 평창스페셜올림픽 미디어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IHB 김성길 대표는 1985년 KBS에 입사, 편성 프로듀서를 거쳐 1993년부터 스포츠 PD로서 2002월드컵 등의 스포츠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KBS기획담당 역할을 수행하고 올 봄 정년퇴직했다.

김호준 CP는 1977년 MBC 입사 후 보도국에서 프로야구, 프로복싱, 스키 등의 중계 PD로 근무하다 스포츠국장을 끝으로 2011년 정년퇴직했다.

## 방우회, KBS 한국어연구회에 바른말 보도상 특별상 수여



왼쪽부터 한상현 아나운서, 이성민 팀장, 성기영 부장, 황우경 고문, 김홍수 실장, 전영우 고문, 강성곤 부장, 김규홍 부회장, 김재원 팀장

지난 30년간 우리말 연구와 바른말 보급에 앞장서온 KBS한국어연구회(회장 김홍수)가 원로 방송인들이 선정한 바른말 보도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12월 10일 오전 11시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방송인동우회(회장 한영섭) 주최 제22회 바른말 보도상 시상식에서 KBS 박주경 기자, MBC 이상현 기자, SBS 한수진 기자가 수상했고, 방우회 부회장인 아나운서클럽 전영우 고문이 ‘대화와 설득’에 대해 특강했다.

## 한국어나운서연합회 전국 아나운서 세미나 개최

성우 안지환, 박경희 교수, 배우 이순재 특강 - 회원사 아나운서 40여 명 참석

한국어나운서연합회(회장 MBC 신동진 아나운서)는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목동에 위치한 한국전파진흥협회 교육원에서 MBC 최현정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아나운서 역량 다면화를 위한 전략 탐구’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40여 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성우 안지환 씨는 첫 번째 음성학 강의를 통해 “연예인들이 지명도로 더빙을 하는 건 안타깝지만, 대중이 원하는 것에 맞추려면 돌아서라도 가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경희(전 KBS) 홍익대 초빙교수는 ‘시대별 방송 언어의 변화 양상’에 대한 강의에서 “화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문화의 일선에 선 아나운서들 역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우 이순재 씨는 “요즘 방송에서 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놀랄 때가 많다. 말의 전달자이자 수호자인 아나운서들이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 송 / 년 / 사



(사)한국어나운서클럽 김동건(전 KBS) 회장

## 선배의 열정과 헌신이 오늘의 영예를 꽃피웠다

올 한 해 무척 빠르게 지나가버린 것 같다. 봄엔 후배들이 나의 방송인생 50년 축하연을 열어주었고, 여름엔 파독派獨 근로자 50주년을 기념해 독일에서 ‘가요무대’를 진행한 데 이어, 가을엔 제50회 방송의 날을 맞아 나도 덩달아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바쁘게 보냈기 때문이다.

단아하고 따뜻한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매료되어 라디오를 즐겨들던 내가 1963년 3월 동아방송(DBS)에 입사한 이래 반세기 넘게 방송하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 아나운서 직종을 사랑하며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전하러 했을 뿐인데, 운 좋게도 줄곧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다.

그래선지 올해 유독 ‘좋아하는 일을 오래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엄격한 자기관리와 꾸준한 자기계발’이란 두루뭉술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란 걸 알기에 굳이 요약해보자면, ‘선배님들의 철저한 지도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우며 믿음을 주는 말을 추구하면서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을 맡은 덕분’이 아니겠는가?

정말이지 선배님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열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선배님들의 열정과 헌신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방송인생50년 축하연, 독일 가요무대 진행 제50회 방송의 날로 덩달아 바빴던 한해

방송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질문 공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말 지켜온 선배님들 덕분이다

독일에서 느낀 바도 그러했다. 얼마 전 올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뉴스를 접하며 파독 근로자들을 떠올렸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들이 이역만리에서 모국의 가족을 위해 광부와 간호사로 피땀 흘려 일하며 송금한 달러는 우리나라 산업에 큰 활력소로 작용해 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으며 국제사회에 한민족의 근면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건 사람에서 비롯된다. 앞서간 누군가 시행착오를 거쳐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후배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와 같은 발자취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분을 다지도록 이끌어주는 선배의 가르침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당사자의 부단한 노력이 합쳐지고 거기에 행운이 뒤따른다면 후배들도 누구나 원하는 일을 즐겁게 오래도록 해낼 수 있다. 선배는 선배 노릇 잘 하고 후배들을 사랑하며, 후배는 선배들을 공경하며 열심히 직분을 익힌다면 나날이 발전할 것이고, 그 열매는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 2013 한국어나운서대상에 강재형 아나운서

장기범상에 김성호 교수와 OBS·febc 아나운서팀 / 김동건 회장 특별상 수상



김동건(전 KBS) 회장은 “우리말을 지켜올 수 있도록 이끌어준 엄한 선배님들, 고맙고 든든하다. 후배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으로 선정되어 의미가 특별해진 대상은 ‘자타공인 우리말 지킴이’ 강재형(MBC) 아나운서가 차지했다.

제10회 장기범상은 OBS와 febc 아나운서팀, 아나운서 출신 방송학자인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김성호(전 KBS) 교수가 받았으며 최장수 아나운서인 김동건 회장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날 아나운서연합회는 대한적십자사 유증근 총재에게 취약계층 지원 성금 500만 원을 전달(사진)했고, 아나운서클럽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후원금을 전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2면에 계속)

2014년 정기총회 많은 참석 바랍니다 3월 5일(수) 오후 6시 30분 여의도 열린

### 2013 대한민국아나운서대상 시상식

대상 강재형(MBC) 장기범상 단체-OBS·febc 아나운서팀, 개인-김성호(전 KBS) 광운대 교수 한국아나운서클럽상 안희재(KBS) 최기환(SBS) TV 진행상 이지연(KBS 26기) 라디오 진행상 김필원(CBS) 김현주(PBC) 스포츠 캐스터상 배성재(SBS) 지역상 권순우(KBS 포항) 정예현(CBS 춘천) 특별상 김동건(전 KBS)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장



OBS 신미정 아나운서·febc 공부영 국장과 아나운서팀



KBS 이지연



CBS 김필원



PBC 김현주



SBS 배성재



KBS 포항 권순우



CBS 춘천 정예현

김정근(MBC), 김진희(KBS) 아나운서가 진행한 1부 시상식은 지역 아나운서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정예현(CBS 춘천) 아나운서가 25년 만의 큰 상을 받고 감회를 전한 데 이어, 프로그램 진행뿐만 아니라 제작·행정까지 맡아하며 내년 정년을 앞둔 권순우(KBS 포항) 아나운서가 지역상을 수상했다. 스포츠 캐스터상은 2004 KBS 광주에서 시작, 2006년 SBS 입사 후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보인 배성재(SBS) 아나운서가 받았다. 라디오 진행상은 2001년 입사 후 밝고 힘찬 에너지의 진행자로 낭독 봉사에도 열심인 김필원(CBS) 아나운서와 1986년 마산 MBC에서 1990년 PBC 경력사원으로 발탁되어 진행자 이상의 역량을 발휘해온 김현주(PBC) 아나운서가, TV 진행상은 2000년 입사 이래 유쾌하고 따뜻한 인간미로 좌중을 휘어잡는 이지연(KBS 26기) 아나운서가 차지했다. 한국아나운서클럽상은 정년 1년을 남기고 '지난 36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회고한 안희재(KBS) 아나운서와 훈훈한 외모에 깔끔한 진행이 돋보이는 최기환(SBS) 아나운서가 받았다. 또한 모범적인 방송과 사회활동을 해온 개인 또는 단

체에게 1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주어지는 장기범상은 '바른말로 가는 길'이란 뜻의 '정말로' 프로그램을 제작·진행하며 올바른 방송언어 창달을 위해 노력해온 OBS 아나운서팀, 선교사의 파송이 불가능한 곳까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며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febc 아나운서팀, 그리고 '장기범 평전'과 '한국아나운서통사' 등을 펴낸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김성호(전 KBS) 교수에게 돌아갔다. 시상에 앞서 2003년 1억 원을 기탁해 상을 제정한 이계진(전 SBS) 부회장은 10주년을 맞아 "장기범 선배의 투철한 아나운서 정신을 기리는 '방송계의 사이 영'상을 만들고 싶었다. 우리 선배들이 어떤 분이셨나 후배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국회에 있을 때 만든 국어기본법이 제대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피력했다. 그리고 신동진 연합회장이 '지난 50년간 품위 있는 진행, 바른 이미지로 후배들에게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해준' 김동건 회장에게 특별상을 수여한 데 이어 열정적인 우리말 지킴이 강재형(MBC) 아나운서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27년간 아나운서실에서 근무하다 수상 하루 전인 11일 편성 PD로 발령받았으며



김중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언어 문화의 품격을 풍요롭게 해주는 한국아나운서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했다. 시야를 넓히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다. MBC 허일후, 서인 아나운서가 진행한 2부는 지역 순환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KBS 이슬기 아나운서와 2013년 입사한 MBC 박창현, 임현주, 차예린 아나운서의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으로 흐뭇하게 막을 내렸다.

#### 대상 수상자 MBC 강재형

2013 한국아나운서대상 화제의 수상자



고려대 영문과 졸업 후 1987년 입사 면접시험을 볼 때 '왜 영문학도가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운명이다. 걸어 다니는 표준말이 되겠다."라고 답했다는 강재형(MBC) 아나운서. 그동안 '퀴즈 아카데미', '장학퀴즈', '샘이 깊은 물', 'TV뉴스', '가요스포츠'를 진행하며 당찬 각오만큼 방송 못지않게 우리말에 대한 탐구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1997년 MBC '우리말 나들이'를 처음 기획한 그는 정부언론외래

어심의위원회와 국어심의회 위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보도영어통일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간사로 활약했다. 또 고려대 언론대학원에서 방송학을 전공하고 2010년 미디어언어연구소를 설립해 올바른 우리말 전파에 앞장서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제12대 회장을 지낸 강 아나운서는 1996년에 한국아나운서클럽상을 받았으며 2000년 한국어문상 수상, 2008년 한글학회 우리말지킴이로 선정된 바 있다.

#### 아나운서클럽상 수상자 KBS 안희재



아나운서였던 언니 안종순(전 MBC) 회원의 영향을 받고 이화여대 불문과를 졸업하던 1978년 KBS 공채 5기로 입사했다. 그 동안 TV '가정뉴

정년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세상을 거울삼아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라는 의미의 상이라 생각한다'는 안희재 아나운서.

'스', '중학생 퀴즈', 라디오 '오후의 교차로', '아침 종합뉴스' 등을 진행했고, 체조 캐스터로 활약했다. 또한 1986년 제14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영·불어 사회자였던 그는 중국 북경 CRI·CNR(2003년), 미국 애틀랜타·뉴욕 한인방송(2008년), 중국 연변 방송 아나운서·기자 교육(2011년)을 맡기도 했다. 경제 흐름 분석과 영화 보기가 취미이고 피아노 치기가 특기인 안희재 아나운서는 평소 존경해왔던 성실한 선배들의 모습처럼 타인의 기쁨이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뜻밖의 것을 발견하는 'serendipity'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 아나운서클럽상 수상자 SBS 최기환



유연한 진행으로 방송을 더욱 따뜻하고 유쾌하게 만들어 주는 이계진 선배를 보며 아나운서를 꿈꾸게 되었다는 최기환 아나운서. 야구, 스키를 좋아하는 그는 인하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2003년 10월에 SBS에 입사, '한밤의 TV연예', '생방송 투데이', '금요 컬처클럽' 등을 거쳐 현재 '모닝 와이

드 3부', '접속 무비월드', '희망TV'를 진행 중이다. 2009 앙드레김 베스트스타 어워즈, 2010 SBS 연예대상, 2011 대한민국 영상대전 포토제닉상을 수상한 바 있는 간판 아나운서로 올해부터 동아방송예술대학에도 출강하고 있다. 언어의 매력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해준 TV 속 선배님들처럼 '폼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에 동경해온 선배님들이 주시는 이 상이 어떤 상보다 무겁고 영광스럽다며,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임해 시청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 장기범상 수상자 전 KBS 김성호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송인물지리지(나남) 등 10여 권의 책을 펴냈다. 장기범상을 받고, 특히 2007년 장기범 평전(지식산업사), 2012년 '한국아나운서통사(나남)' 등을 저술할 때 동고동락해준 이세진 선배에게 고마움을 표

한 그는 '자신이 방송이 시작된 1927년부터 MBC TV가 개국한 1969년까지 엮어냈으니 이제 후배 중 누군가가 뒤를 이어 아나운서의 역사를 정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기범 아나운서 공식 추모식을 주관할 때에도 관련 책자를 만들어 참석자에게 배부할 정도로 방송사로 수집과 전파에 앞장서온 김성호 교수는 지난 10월 15일 KTV 뉴스 '집중인터뷰'에 출연해 한국방송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앞으로 장기범 선배를 비롯해 많은 방송 선인들의 발자취가 방송박물관에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특별상 수상자 전 KBS 김동건 회장



떨게 내가 상을 받나?'며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방송사에 한 획을 그은 쾌거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후배들의 간곡한 요청에 수락했다며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 했다.

김 회장은 "꿈에 그리던 아나운서가 된 후 뉴스 원고를 전부 집으로 가져와 녹음하며 연습하다 보면 머리가 어질어질했지만 매일같이 반복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낀다면 그게 천직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며, "오늘날까지 아나운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히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었기에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신의 가호 덕분에 건강하게 해올 수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이래저래 김동건 회장에게 2013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리라.



### 초대석 임국희(전 MBC) 부회장

## 선배님, 아나운서는 어때야 하나요?

### 모든 걸 내 말로 만들어서 방송해야죠. 언제나 올바른 도덕 기준을 갖고...



'실수한 건 빨리 잊고 다음 방송 기다렸지' 그의 낙천적 방송관을 엿볼 수 있었다.

#### “선배님 원래 꿈이 아나운서였나요?”

“아니, 나는 원래 꿈이 없었어.”  
“아! 그럼 선배님 방송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가 있나요?”  
“난 원래 지난 일들은 금방 잊는 성격이라 딱히 기억에 남는 일이 없네.”

‘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당황했고 마른침을 삼켰다. 그 순간 임국희 선배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씀하시길

“대호 씨, 옛날이야기 잘 모르지? 인터뷰할 때 본인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대화하듯이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 라디오처럼. 라디오 안 해봤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선배님이 가깝게 느껴지면서 긴장이 풀렸다. 그리고 인터뷰 요청을 받고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열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 “선배님 제가 입사 3년차인데 아직도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저에게 맞는 일인지 과연 잘하고 있는지 고민이 되는데, 선배님께서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선배님께서도 또 한번 미소를 지으시고는 처음 방송을 접했을 때 일을 말씀해주시기 시작했다.



'한밤의 음악편지' DJ로 인기 절정이던 1970년 당시 임국희 아나운서가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다



1965년 <아리랑> 잡지가 주최한 연말 시상식에서 임국희 아나운서의 수상을 축하해준 김동건, 이영주, 최계환, 임국희, 박중세 아나운서(왼쪽부터)

“서울대 떨어지고 성균관대학교에 들어간 나는 ‘뭘 해야겠다.’ 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 그러던 중 연극부에서 KBS에서 주최하는 라디오 연극에 여주인공 역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 난 당연히 거절했어. 당시에 여학생들은 간호사나 선생님 같은 직업을 가지려고 했지, 방송에 관련된 일은 창피하기도 하고 어른들도 좋아하지 않을 때였거든. 그런데 계속 조르기에 결국 경상도 술집마담 역으로 나가서 상을 받아 버린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 해는 KBS 성우들이 찾아와 꼭 출연해달라고 따라다녀서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또 수상을 했지. 그 이후로 드라마를 해보라는 제의가 들어왔지만 난 싫었어.”

#### “왜요? 배우가 싫어서요?”

“방송은 연습량이 너무 많아. 호호호! 나는 원래 연습에 약해. 하지만 이런 기회들이 자주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방송에 데뷔했지. 그래서인지 난 직업의식이 별로 없었어. 결혼을 하고 1961년에 KBS에 입사 후 64에 MBC 창사 멤버로 이직해 10년간 근무하다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지.”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쿨’ 그 자체였다. 한 평

임국희 선배님을 처음 만난 것은 2011년 11월 안동에서 코이카협력부와 6·70년대 입사 선배님들과 함께한 워크숍 자리였다. 당시 공개 오디션을 거쳐 갓 입사했던 나는 갑자기 아나운서 대선배님들과 만나는 게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2년 후, 막연하게 대선배님이라고만 생각했던 분을 인터뷰 하자니 아는 것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대다가 결국 인터넷에 임국희 아나운서를 검색해봤다.

1934년생, 1961년 KBS 입사, 64년 MBC 창사 멤버로 그 해 가을부터 ‘한밤의 음악편지’ DJ, ‘여성살롱’ MC…… 그렇게 인터뷰 당일, 나는 임국희 선배님과 만나자마자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뭔가를 질문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

생을 아나운서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신 선배님은 그만큼 직업의식이 투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답변이었다.

“난 방송이 끝나면 항상 기뻐요. 난 내가 항상 참 방송을 잘한 것 같았어. 나한테 불리한 건 금방 잊는 성격이라 실수한 일들을 빨리 잊고 다음 방송을 기다렸지.”

이 말씀을 듣고 난 속으로 ‘애!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난 심각했던 거였다. 진지하되 방송을 즐길 줄 알아야 했는데, 과연 이 길이 맞는지 안 맞지만 생각하다가 정작 방송을 즐기지 못 했던 거였다. 이미 나 자신을 아나운서라고 내 입으로 말하고 다니면서도 아직도 진로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 미련한 짓이었다. 난 의외의 매력을 가진 선배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 “선배님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신 거예요?”

“아니, 훈련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지난 일을 굳이 끄집어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올 일들을 즐기려고 노력했지.”

“선배님 그렇다면 방송생활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기억은 별로 없었겠네요?”

“음, 있기는 했지.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였지. 아이를 낳고 3주 정도를 쉬었어. 그리고 회사를 나가려니까 당시 내가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고 아나운서실에서는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아나운서를 그만두는 게 어떻냐?’ 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다음에 이어질 말이 궁금해서 마치 손자가 할머니께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듯이 빨리 말해달라고 했다.

####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만두셨어요?”

“호호호, 내가 그때 좀 잘나갔거든. 사장님께 전화를 했지. 그리고 ‘이것이 최고경영자의 방침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리고 몇 시간 후 몸만 괜찮으면 내일부터 다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와, 선배님! 정말 배짱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방송들을 했었나요?”

“대호 씨, 정말 옛날이야기 잘 모르는구나. ‘한밤의 음악편지’ 몰라? 내가 1964년부터 72년까지 진행했지.”

“사실 찾아보고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잘 몰라요.”

“호호호! 64년 당시에는 오전 7시 전과 오후 10시 이후에는 여자 목소리가 전파를 타면 안 되는 시기였어.”

“네? 정말요? 왜요?”

“예전에는 그랬어. 그런데 ‘한밤의 음악편지’는 우리나라 최초로 밤 시간대에, 그것도 가요가 아닌 팝송이 나갈 방송이었지. 당시에는 아나운서가 엔지니어와 작가의 일도 다했다고. 만능이 되어야 했지. 나는 음악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봤어. 그게 다 라디오 방송하는데 도움이 되었지. 다른 디제이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앨범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이 사람이!”

당시 선배님 방송을 바탕으로 만든 해적판 레코드와 책이 날개 돋힌 듯 팔릴 정도였다고 한다. 선배님은 전성기를 기억하는 후배 방송인들의 요청으로 70세까지 나이를 무색케 하는 달콤한 목소리로 tbs에서 2003년 4월까지 방송하셨다.

“죄송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하하하! 그런데 선배님 저는 뉴스, 예능, 시사교양 각 부문의 방송은 해봤는데 라디오를 못 해봤어요. 라디오 방송 정말 매력있지만 어렵더라고요. 라디오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

“노력해야지, 노력! 책을 많이 읽고 교본 삼은 만한 책을 만들어봐. 나도 많이 인용했어. 요즘에는 작가들이 있어서 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점도 있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말들도 간혹 있거든. 그래서 내 마음에 와 닿는 말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많이 읽고 다시 내 말로 만들어서 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방송은 순간 몰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체력 소모가 심하거든. 체력이 좋아야 해.”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뭘 인터뷰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막막해하던 내가 이제는 마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가까운 선배님같이 여겨져 뭐가 자꾸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아나운서로서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했던 나를 일깨워주신 선배님이 한 없이 감사했다.

그리고 이런 뻘한 질문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결국 어쭙보고야 말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질문이야말로 일생을 방송에 쏟아 부은 대선배님이 아니고는 대답해줄 수 없는 질문이기에 임국희 선배님과 같은 분께 물어봐야 했던 것이다.

#### “선배님, 아나운서는 어때야 하나요?”

“아나운서는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표준이란 건 말이야, 보통 수준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들이 따라와야 할 수준이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올바른 도덕 기준을 갖고 닦아야 해. 나는 우리 아나운서 후배들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도를 갖고 닦아서 끝까지 진실한 한 인간으로 남아줬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호호호!”

선배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쿨하게 끝났지만 나는 그 뒤에 환청마냥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우리 아나운서 후배들이 정말 좋아. 사랑스러워! 그리고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아나운서 후배들 승승장구하고 선배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아나운서로서 굳건히 흔들리지 말아 줘요’ 라고. 내가 현재 아나운서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랑받는 이유는 선배님들의 덕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이나마 큰 부담을 가졌던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앞으로는 선배님들께서 닦아놓은 그 길을 더 아름답고 보기 좋게 가꾸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 초록회 격려상 배현진 아나운서 수상



수상자 배현진 아나운서와 임국희 회장

배현진 아나운서가 전직 MBC 여성 아나운서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초록회(회장 임국희)로부터 2013년도 격려상을 받았다.

12월 5일 열린 초록회 송년 모임에서는 뉴스데스크를 2년 7개월간 진행한 배 아나운서에게 상을 주며 한 해를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초록회는 1995년부터 후배 여성 방송인들이 더 정진하기를 바라며 격려상을 주고 있다. 그 동안 제1회 조일수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유혜자(라디오 PD), 김은주, 김수정, 박영선, 이은주(라디오 PD), 황선숙, 홍은주(기자), 박나림, 이진숙(기자), 강영은, 김지은, 이주연, 방현주, 차미연, 김현경(기자), 하지은, 박소현 아나운서가 수상했다.

# 방송가 소식

## 대전·충남아나운서협회, 중학생 대상 제3기 아나운서아카데미 진행



대전·충남아나운서협회(회장 TJB 이명숙)가 11월 16일 대전 둔산중학교 1층 시청각실에서 방송반 학생 등 중학생 85명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 '2013 제3기 아나운서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날 TJB 대전방송 김도희, 대전CBS 한정혜, 대전MBC 박가영 등 아나운서가 강의와 실습을 맡았다.

아나운서 아카데미는 전·현직 아나운서가 방송 진행 등에 관심이 많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발성과 발음, 아나운싱 기법 등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 박근아(JTV) 아나운서 수필집 <아나운서의 마인드 레슨> 발간 서울서 사인회 열어



10월 1일 <아나운서의 마인드 레슨 - 부끄러움을 버리고 부러움을 사다(미래문화사)>를 출간했다. 박 아나운서는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후 2002년 JTV 전주방송에 입사, 메인 앵커로 활약하며 전북대학교와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강의도 맡고 있다. '스피치는 움츠려 있는 자신을 가리는 보호막을 깨부수고 용기를 내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는 박근아 아나운서는 11월 21일 저녁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롯데시네마에서 YES24 주최로 작가 강연회와 사인회도 열었다.

## 전북아나운서연합회, 희귀병 어린이 돕기 '아름다운 나눔 장터' 개최

전북 아나운서들과 아름다운 가게 전주 서신점이 유전질환인 신경섬유종을 앓는 김 모(16) 군을 돕기 위해 11월 2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아름다운 나눔 장터'를 열었다.

행사에는 전북아나운서연합회(회장 전주MBC 박승기) 소속 전주MBC 신봉철·윤승희, KBS전주 권장수·김태은, JTV 유진수·박근아, 전주CBS 이은경·유연수, 전주TBN

신혜진 아나운서 등 20여 명이 참여해 애장품을 경매에 내놓고 네일아트, 수제비누 만들기, 노래 등 다채로운 재능을 기부했다.



## 제2회 KBS 어린이발음왕 고양 덕의초 6학년 박규민 양 대상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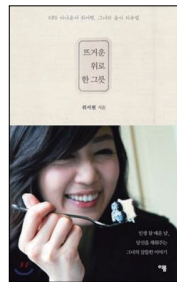
KBS 아나운서실 주최 KBS 어린이발음왕 시상식이 9월 30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KBS 어린이발음왕을 찾아라"에는 전국 3~6학년 초등학교생 참가자 500여 명 어린이들의 동영상 KBS 아나운서들이 두 차례 나눠 들으며 발음의 명확성, 명료성, 효율적인 전달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경기도 고양시 덕의초등학교 6학년 박규민 양을 비롯해 15명의 어린이가 수상했다.

## 38기 김민정 이슬기 한상현 아나운서 2년간의 지역 근무 마치고 본사 복귀

공채 38기 김민정, 이슬기, 한상현 아나운서가 만 2년간의 지역 순환 근무를 마치고 12월 2일부터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 위서현 아나운서 음식 통한 심리 치유 등을 담은 <뜨거운 위로 한 그릇> 펴내

각지의 음식으로 시작해 음식을 통한 심리 치유 등 일상에서 만난 깨달음을 담은 음식 에세이집 <뜨거운 위로 한 그릇(이봄)>을 펴냈다.

이화여대 사범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심리상담학을 전공한 위 아나운서는 2003년 입사, 1라디오 '책 읽는 밤'과 ITV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 '국악 한마당' 등을 진행하고 있다.



## 2013 MBC 아나운서 고궁 낭송회, 경복궁 수경전 야외무대에서 개최



시각장애우와 함께한 '2013 MBC 아나운서 고궁 낭송회'가 10월 4일 오후 7시부터 경복궁에서 펼쳐졌다. 2007년 '공감', 2010년 '어울림'에 이어 '희망으로 하나 되는 메시지'란 주제로 펼쳐진 제3회 행사는 방현주 아나운서의 진행과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연주로 한글이 창제된 집현전의 옛터인 경복궁 수경전 야외무대에서 열려 더 의미가 있었다.

## 뉴스 개편 '뉴스데스크'에 박상권 기자 김소영 아나운서 등 새 앵커 투입



11월 18일부터 MBC 뉴스가 새 얼굴들로 바뀌었다. MBC의 간판 뉴스프로그램 '뉴스데스크'의 새 앵커로는 박상권, 김소영 앵커(사진)가 투입되었다.

2012년 입사한 김소영 아나운서는 2년 차로 'TV속의 TV', 'MBC 3시 경제뉴스'를 진행했고, 지난 8개월간 MBC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해왔다.

또한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로는 도인데, 강다솜 앵커가 결정됐다. 강다솜 앵커는 2010년 MBC 아나운서 국에 입사, '뽀뽀 아이조아'와 '주말 뉴스투데이' 앵커를 맡아왔다.

평일 '뉴스투데이' 앵커로는 올해 입사한 임현주 아나운서가 시청자들과 만나게 되었다.



## 김주희 아나운서 동유럽 사진전 열고 수익금 아프리카 수단에 기부

'인 드림스'(In Dreams)라는 제목으로 오는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인사동 공아트스페이스에서 프라하와 체스키 크롬프트를 여행하며 카메라에 담은 78점의 사진을 전시하고 수익금을 월드비전을 통해 아프리카 남부 수단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짓기에 기부했다.

2005년도 미스코리아 진 출신으로 같은 해 SBS 공채 13기로 입사한 김 아나운서는 앞으로 대학 동아리 때부터 시작한 사진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환 아나운서 예능 프로그램 디자인 서바이벌 '패션왕' 진행

11월 17일부터 방송되고 있는, 패셔니스타들이 디자이너와 호흡을 맞춰 펼치는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패션왕' 진행자로 발탁되었다.

2007년 입사 후 '좋은 아침', 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등을 맡았던 김환 아나운서가 예능 프로그램을 단독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신입 조정식 아나운서 '생방송 투데이' 메인 MC로 발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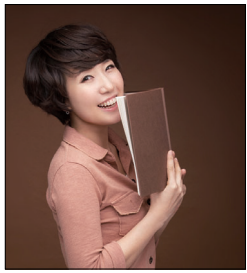
올 3월 공채로 입사한 조정식 아나운서가 '생방송 투데이'의 메인 MC로 발탁되어 기존의 윤현진 아나운서, 새로 투입된 최영아 아나운서와 함께 능숙한 진행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조 아나운서는 현재 '토요 모닝와이드' 2부의 '굿모닝 연예', '풋볼매거진'의 '주간 토크' 등에 출연 중이다.



### 장주희 아나운서 홍보팀장 발령

장주희 부장이 지난 10월 기획조정실 홍보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3년 반 동안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CBS 아나운서부를 이끌어온 장주희 팀장이 앞으로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대외 홍보업무에 많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 김용신 아나운서 국민일보에 칼럼 연재

지난 9월부터 국민일보에 '살며 사랑하며'라는 제목으로 일상에서 느끼는 단상을 따뜻하고 정감 있게 풀어내는 칼럼을 게재해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 아나운서는 방송을 마치고 적어 내려갔던 글을 모아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들녘)>를 출간한 바 있다.

### 유지수 아나운서 출산 후 복귀

1년여의 출산과 육아휴직을 마치고 10월 말 복직했다. 발랄한 외모와 목소리로 청취자들에게 다가갔던 유 아나운서는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로 '하근찬의 아침뉴스'와 새벽뉴스를 전담하고 있다.



### 신사옥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극동방송 프로그램



상수동 신사옥에서 울려 퍼진 첫 생방송에서 아나운서와 게스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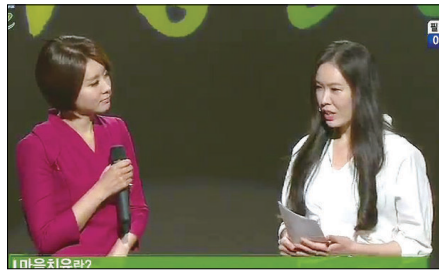
사옥 건축에 함께해 준 청취자들을 초청해 사옥 투어도 하고 주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콘서트, 세미나, 공개방송 등 청취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리화할 계획으로 '크리스천 음악공감 수채화',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 일일 DJ 코너 '나도 DJ', 꿈을 좇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조명하는 오픈 스튜디오 클릭비전 코너 '아름다운 사람' 등을 선보인다.

극동방송이 서울 마포구 상수동 옛 사옥 자리에 지하 4층, 지상 7층의 신사옥을 완공, 10월 26일 헌당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신사옥 시대를 열었다. 6만 7천여 명의 헌신으로 지어진 연면적 6000평 규모의 신사옥은 500석 규모의 공개홀과 최첨단 영상 스튜디오, 방송선교역사관 등을 갖추고 있다. 11월 18일 오전 7시, 가을 개편을 맞아

또한 다가오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한국교계 내의 연합과 일치를 돕기 위한 방송도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이다.



### 강미정 아나운서 특집 '청소년 바른생활을 위한 희망강연' 진행



강미정 아나운서가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편성한 특집 '청소년 바른생활을 위한 희망강연' MC를 맡아 개그맨 권영찬, 교수 정상대, 가수 아웃사이더, 심리치료사 문정아 등 우리 사회 희망 멘토로부터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진로, 학원폭력 등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



### 국립국어원 한글문화학교 2회에 걸쳐 사내 개최

아나운서부 주최로 국립국어원 강사를 초빙해 tbs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문화학교를 개최했다. 11월 8일 국립국어원 정호성 어문연구팀장이 어문규범을 중심으로 잘못 쓰는 표현과 우리말 바로 잡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12일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대성 학예연구관과 함께 외래어 표기, 외래어 순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 북 콘서트 찬불동요제 등 행사 진행, 2명의 신입사원 입사



북측 순환로 일대에서 불교계 베스트셀러 작가 월호스님 등을 모신 북 콘서트와 걷기대회로 이뤄진 '책 읽는 가을 남산길 산책' (사회 최은경 아나운서)이 열렸다.

가을철 불교방송에서 시청자, 청취자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행사에 불교방송 아나운서들이 사회와 진행을 맡았다. 9월 30일 동국대학교 만해광장과 남산

11월 16일에는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이라는 주제로 초·중·고등학생과 중학생 개인, 단체 팀들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 제4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사회 이효주 아나운서)가 개최되었다.

한편 11월 1일 새 가족이 되어 열심히 연습 중인 김형기, 박지혜 아나운서가 불교방송에 새 바람을 불어넣길 기대한다.



눈초 掣初 이규향(전 KBS)의 발음 교실 2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 사람이 말을 만들고 말은 사람을 만든다

- 품위와 음악성 갖춘 표준어 표준발음 교육이 훌륭한 어른 키워낸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칙 제1항) 이 규정에서는 표준어를 못 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띠빙 / 따꿍'

#### 표준어의 조건

- 1) 통용력通用力
- 2) 품위성 / 음악성
- 3) 통일의 기능
- 4) 준거準據의 기능

(비표준어), '뚜꿍(표준어)'에서처럼 표준어는 어느 지역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1) 통용력通用力이 일차원적인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2) 품위성 / 음악성, 3) 통일의 기능, 4) 준거準據의 기능 같은 충분조건에는 오늘날에도 학계나 방송 현장 모두 무심한 편이다.

무릇 교양 있는 사람의 제1조건은 품위성과 음악성이 있는 말씨이다. '이상적인 말씨는 음악의 연주(recital)와 같다'는 명제命題를 전영우 선배께서 일찍이 60년대 초 아나운서 세계에 심어주셨다. '아나운서에 반하다.' 이는 당시 좋은 방송의 통념이었다.

한편 이 규정에서 서울말이 표준어가 된 것은 한 나라의 수도에서 쓰는 말 때문이 아니다. 서울말은 500년 왕도에 걸맞은 품격 있는 말로,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 아닌 '서울 말'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표준어의 조건이 수도가 아닌 2) 품위성과 음악성에 있음은 자못 흥미롭다.

영국의 표준어는 거친 런던이 아닌 남부 지역 말이며, 프랑스도 파리가 아닌 투르이다. 독일도 베를린이 아닌 하노버이며, 이탈리아 역시 로마가 아닌 문예부흥의 발상지 피렌체이다. 미국은 영국에서 종교 문제로 이민 온 백인 앵글로색슨 신교주의자(White Anglo-saxon Protestant/WASP) 계층이 쓰는 우아한 영어이다.

사람은 같은 고향사람의 말을 들으면 친밀감을 느낀다. 반면 다른 지역의 말은 고향 말에서처럼 정다움을 느낄 수 없고 때로는 거부감마저 느낄 수도 있다. 이는 공통되는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묶어주는 끈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

표준어는 문화를 꽃피운 지역의 말로 정해져 프랑스는 파리 아닌 투르, 독일은 베를린 아닌 하노버, 이탈리아는 로마 아닌 피렌체, 한국은 500년 왕도 서울의 품격 있는 말

의 국민을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말, 이를 3) 통일의 기능(unifying function)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말기 공직자는 공식 석상에서 반드시 표준어 / 표준발음을 지켜야 한다는 국어 정책을 구상했었다고 한다.

표준어는 21개(단모음, 이중모음)의 모음으로 최대한의 어휘를 만들어야 하므로 지키기 어려운 모음의 음가價値를 지켜야

하는 인공어人工語이며, 비표준어는 발음의 구속력을 무시한 자연어自然語이므로 이 지역의 언중言衆은 성량이 큰 편이다.

표준어는 교통규칙처럼 지키기 싫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발음 교육을 실시한다면 자연스럽게 준법정신도 길러주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이를 4) 준거의 기능(Frame of reference Function)이라고 한다. 영국의 전통적인 테이블 매너는 말 교육으로 성장해서 영국신사로 탄생되는 것이다. 옛날 우리나라의 '밥상머리' 교육 역시 훗날 말씨가 반듯하고 단정한 선비와 요조숙녀를 낳게 했던 것이다.

언어는 완성도完成度로 가는 연마과정에서 말씨라는 '인간계급'을 형성해준다. 과거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가정교육 - '너희들은 앞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말의 내용을 듣기 전에 말씨부터 들어라.' 모름지기 사람이 표준어 / 표준발음을 만들고 표준어 / 표준발음은 표준인간 / 상식인을 만든다.



### 회원 동정

#### 12월 1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탈북자 후원의 밤 송년음악회 개최



**박선영(전 MBC)**  
 물망초재단 이사장으로서 12월 18일 오후 7시 30분 광화문 서울역사 박물관에서 박민정 사무총장의 사회로 물망초 후원의 밤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탈북자를 돕고자 서울음대 김영울 학장이 주도해 재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펼쳐지는 음악회이다.

#### 차인연합회 '올해의 명예차인상' 수상



**강영숙(전 MBC) 고문**  
 12월 16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 세종홀에서 (사)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흥) 제5회 '올해의 명예차인상'을 수상했다. 1974년 예지원 개인 이래 고故 안광석 선생에게 우리 고유의 다도 문화를 전수받은 강 고문은 차인연합회 고문이기도 하다.

#### KBS 2TV '불후의 명곡' 변안가요 특집 출연



**김기덕(전 MBC)**  
 12월 8일 KBS 2TV '불후의 명곡' 변안가요 특집 초대석에 출연해 DJ로 활약하던 당시 원곡의 인기를 소개했다. 1972년 MBC에 입사,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로 유명했던 인기 DJ 김 회원은 현재 SBS 러브 FM에서 주말 '2시의 뮤직쇼'를 진행하고 있다.

#### SBS TV '힐링캠프' 출연



**김성주(전 MBC)**  
 11월 25, 12월 2일, 2주 연속으로 SBS '힐링캠프'에 출연했다. 방송계에 입문한 스포츠 채널 아나운서 당시, 3년간 1,000여 건의 중계를 하며 스포츠 캐스터로서 기량을 연마한 일 등을 밝혔다

#### <그와 그녀의 목요일> 주역으로 연극무대 데뷔



**유정아(전 KBS)**  
 '연극열전 5' 무대를 통해 은퇴한 국제분쟁 전문기자 역으로 연극 배우로 첫선을 보였다. 11월 2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대학로 문화공간 필링 1관에서 공연되는 <그와 그녀의 목요일>의 주역(배우 정재은과 더블캐스팅)을 맡아 조재현과 호흡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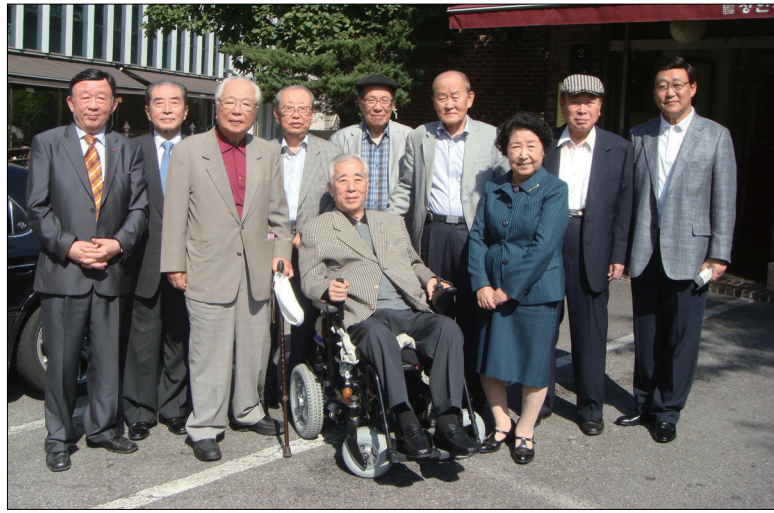
1989년 입사, 1997년 퇴직 후 프리랜서로서 방송, 강의, 칼럼 집필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왔다.

#### 제2회 SAC전국스피치경연대회 주관



**김명숙(전 KBS)**  
 서울종합예술학교 아나운서소호스트학과가 11월 30일 실시한 제2회 SAC전국스피치경연대회를 주관했다.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 김자영(전 KBS), 김병찬(전 KBS), 김효석(전 PBC) 회원도 심사에 참여했다.

#### 김동건 회장 고문진과 오찬 회동, 고문 8명 모두 참석한 건 처음이라 더욱 뜻 깊었던 자리



김동건 회장이 김규홍 부회장과 함께 10월 9일 서울 서초동 한식집으로 고문진을 초대, 오찬을 함께했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의 고문 8명 전원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 더욱 뜻 깊었던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선배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클럽의 발전을 위해 계속 자문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왼쪽부터 김규홍, 최만리, 황우경, 박종세, 임택근, 전영우, 전영덕, 강영숙, 최계환, 김동건(직함 생략)

####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사회 보건의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아



**나경은(전 MBC)**  
 11월 19일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3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행사 사회를 보고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서 보건의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2004년 입사, 올해 8월 퇴사한 나 회원은 2008년 개그맨 유재석과 결혼해 1남을 두고 있다.

#### 하와이 활동 접고 LA로 이주 4개월간 고국 방문



**이영호(전 KBS)**  
 28년간 하와이에서 활동하다 지난 4월 은퇴하며 LA로 이주한 후 8월부터 4개월간 고국을 방문해 아나운서 선후배, 동료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11월 25일 돌아갔다. 1967년 TBC 아나운서 겸 DJ로 선발되어 방송에 입문한 이 회원은 보도 편집 PD로 일하다 1985년 이민, 한국일보 하와이 지사장과 하와이 라디오서울 뉴스 앵커로 활약했다.

#### MBN '뉴스공감' 출연, 휴 채널에서 사진작품 방영



**박찬숙(전 KBS) 부회장**  
 11월 13일 MBN '뉴스공감'에 출연해 여성 뉴스 앵커 1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한국정치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또한 휴 채널에서 박 부회장의 사진 작품이 '물의 자화상'이란 제목으로 하루 세 차례 방송했다.

#### 독일 휘호대회 참석하고 1주일간 유럽 여행



**윤영중(전 KBS)**  
 11월 5일 독일 뒤셀도르프로 출발해 국제난정필회 각국회대회 개막식 참가 후 12일까지 독일, 프랑스, 스위스를 둘러보고 귀국했다. 한·중·일·대만·싱가포르 등 7개국 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 윤 회원은 사군자 난(7면 제재)을 출품했다.

1953년부터 64년까지 KBS에서 근무한 윤 회원은 어릴 적 소질과 취미를 살려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서예에 매진하다가 최근엔 용인 수지여성회관에서 수묵화를 즐기고 있다.

2014년 정기총회  
 3월 5일(수) 오후 6시 30분 여의도 열빈

#### 시각장애인 문화누리사업 연날리기대회 중계



**임주완(전 MBC)**  
 11월 8일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도서관(관장 박광재)이 주최한 제1회 '장애 실어 날리는 연날리기 대회'를 중계했다. 시각장애인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한 '2013 배리어프리 문화누리사업'을 마무리하는 행사였다.

#### MBN '뉴스2', KBS '아침마당' 출연



**이계진(전 SBS) 부회장**  
 10월 17일 MBN '뉴스2'에 출연해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이어 11월 12일에는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후회하지 않는 전원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방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진행하고 있다.

#### 강의도 하며 OBS '명불허전', 'MBN 뉴스와이드' 진행



**송지현(전 KBS)**  
 10월 27일 천안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에서 '핑크리본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2004년 간암을 극복한 송 회원은 차인태(전 MBC) 부회장에 이어 지난 6월 19일부터 조은유 아나운서와 함께 OBS 경인TV '명불허전' MC를, 9월 2일부터 'MBN 뉴스와이드' 앵커를 맡고 있다.

#### 외교부 명사 특강 강연



**신은경(전 KBS)**  
 10월 15일 외교부 무료명사특강에서 성공과 도전에 대해 질문하며 어떤 자세로 인생의 사명을 수행하고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했다. 1981년부터 1992년까지 뉴스앵커로 활약한 신 회원은 올 3월부터 차의과대 의료홍보영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BS 라디오 책 낭송, 채널 A <스타 패밀리송> 출연



**윤지영(전 SBS)**  
 EBS 라디오 '명사가 읽어주는 한권의 책'과 채널 A <스타 패밀리송>에 출연 중이다. 1996년 입사, 'SBS뉴스'와 '금요 컬처클럽'을 진행한 윤 회원은 2011년 퇴사 후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 미주방송인협회 임원 회의 개최



(사)미주방송인협회(회장 김정수)는 11월 22일 오후 6시 LA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송현식(전 KBS) 이사의 사회로 '위진록 자서전 미주 출판기념회' 를 개최했다.

이어 이 날 인 23일 정오에는 김봉구(전 HLKZ-TV) 명예회장, 박복수·김영우(전 MBC) 고문과 정영호(전 KBS)·송현식·홍우창(전 TBC) 이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LA 한인타운 중식당에서 임원 회의를 열고 올해 경과 보고에 이어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토의했다.

김정태 우즈베키스탄 선교여행, 이승상 둘째 며느리 출산 도우러 어바인으로 임시 이사 서동숙 LA 라디오서울 '일요일에 만나다' 진행, 함명혜 LA YTN 라디오 뉴스 진행 김미희 LA 라디오서울 낮 프로그램 진행, 딸은 K-POP 프로그램 진행

CBS 아나운서 실장을 지낸 김정태(전 CBS) 회원은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LA영 교 회 청년회원 15명을 인솔하고 우 베 키 스탄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 이승상(전 MBC) 회원은 12월 중순 출산 예정인 둘째 며느리 바 라 지 를 위해 임시로 아들네와 가까운 어바인의 라구나우드로 이사했다. 라구나우드에는 KBS 출신 김자규 사우와 백재하 사우가 살고 있어 가까이 지낸다고 한다.

서동숙(전 KBS) 회원은 LA 라디오서울에서 매 주 일요일 정오부터 2시까지 방송하는 "일요일에 만 시 다"를, 1979년 동아방송에 입사한 함명혜

(전 KBS) 회원은 LA YTN 라디오 뉴스 진행을 맡고 있다. 79년 KBS에 입사한 김미희(전 KBS) 회원은 그동안 LA 라디오서울의 저녁 5시 뉴스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방송되는 새 프로그램 진행자로 옮겼다. 김 회원은 부친상을 당해 시 귀국, 6기 동기인 이계행, 오미영, 황인우를 만나고 돌아왔다. 특히 7개월 전부터 LA MBC AMERICA 콘텐츠부서에서 일하는 린다 김도 매주 토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라디오서울의 "LATELY" 프로그램을 맡아 K-POP을 소개하고 있다. 정리 / 정영호(전 KBS) 편집위원

### 새해 소망과 축하 인사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어진 일 즐기고 풍성히 베풀면서, 또 있을 내일을 꿈꾸면서 감사히 살겠다.'는 동아방송 2기 맹경원(전 DBS) 회원.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고, 가꾸고, 선물하며 아름답고 있게, 아나운서답게(?) 어 가고 싶다.'는 홍우창 회원.

강미란(전 KBS) 회원은 클럽 여성 총무로 일할 때 수고한다며 격려해주셨던 임택근 고문님과 부산방송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무중, 배덕환 실장 등 시 애 에 온 뒤로 인사 한번 드리지 못한 선배님과 69년 입사 동기들에게 안 부 인사를 전했다.

"전·현직 아나운서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니 다. 새해 많이 받으세요!"



### 수필

## “나는 아나운서다 그리고 아직도 꿈을 꾸다”



1975년 10월 KBS 공채 3기 아나운서 합격 소식.

마이크는 내 천직이었는데 방송의 열망과 요구를 뒤로 하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과 함께 또 한번의 새로운 직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다행히 프리랜서 방송인으로서 KBS뿐만 아니라 EBS의 출연과 집필까지 폭넓은 채널로 아나운서의 관문을 더욱 넓히는 경험을 하게 된 이 다.

이런 이유들로 나는 남보다 8년이나 늦게 초등학교 교사의 문을 두드렸고, 이후 3년 6개월 전부터는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교육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역량을 발휘하며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 아나운서 역할 또한 거 히 해내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교직 30년간 모범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 표창 및 장관상 등 크고 작은 수상이 많았다. 그러나 특히 지난 11월 4일에 받은 서울시교육감 표창은 내게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직

속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는 제35회 교육연구논문 공모제에 논문을 출품하여 표창을 받게 된 것이다. 표창 소식을 듣고 지난 번 최종 대면심사 때 받은 “지역교육청의 광역화”와 관련된 불편한 질문공세의 충격으로 좌절감을 보며 불합격을 예상하였고 마음의 아 을 미리 체험했기에 표창 소식이 얼마나 큰 기 인 지 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최종 대면심사 때 교육청의 심기를 거스를 나의 제안을 놓고 불편한 질문공세에 좌절감을 보 며 불합격을 예상했던 터라 표창 소식이 얼마나 큰 기 으 로 다가왔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 매칭시대 방송과 교육행정 접목 시도 결혼 후 늦깎이 초등 교사로 출발 교육연구논문 공모전에서 표창받아

2012년 9월 1일부터 시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업무 지원 및 소속 학교의 학교교육 만족도와 관련하여 교원 2,558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스스로 회 기념 논문이라 자위하며 2013년 8월 31일까지 연구에 매달렸다. 2000년도에 시작하여 2004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보다 고난도(?) 노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 정도였다.

그 결과 창 의·창조적 교육행정실현 방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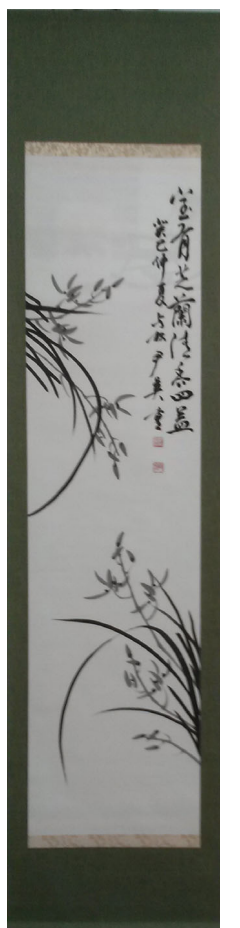
### 채영신(전 KBS) 서울 정심초등학교 교감

11개소에 달하는 서울시 지역교육청을 광역화시켜 5, 6개소로 줄이면 교사들이 공문감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 에 시교육청은 교육 지침권과 총 감독 권한 공문 생산량의 절감을 위해 지역지원청의 광역화 및 설렁 역할 주도 학교 업무의 재구조화 일환으로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장 자율권 대폭 강화 간단 한 공문 보고는 행정실로 이관, 절감한 행정비용을 복지예산으로 이관한다면 교사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현저히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선책이다. 이로써 교육 현장이 나아질 수 있다면 지난 1년간의 수고는 큰 보람으로 돌아오리라.

나의 이미지가 아나운서 출신의 화려해 보이는 교사가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매 시 대 에 맞게 방송과 교육행정을 접 목 시 채영신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 을 만들어주신 선후배 동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나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는 과거 대제국을 정복한 역량인의 말처럼 그 꿈의 실현을 위하여 나는 수시로 내 꿈을 내 보이리라. “By oring together, e can change our dream reality.”



윤영중(전 KBS) 난란

# Zoom-in 위진록(전 KBS)

## “떠나온 고향과 모국에 대한 사랑이 제가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육필로 쓴 인생 기록 <고향이 어디십니까?> 서울 출판기념회 - 한국근현대사 고스란히 담긴 대하소설 같은 자서전



부인이 그린 초상화를 표지로 한 자서전을 들고 흐트해하는 우리나라 최고 원로 위진록 아나운서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이계진, 친지, 계원준, 강정도, 박경환, 이상만, 정도영, 김규홍, 황인우, 이혜옥, 정영규, 박민정, 채영신, 고은정, 윤영중, 문복순, 민병연, 친지, 강영숙, 최계환, 최창봉, 전영우, 최은희, 위진록, 황우경, 한영섭, 박중세, 김동건(직할 생략)

### 출판기념회를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네,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어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동안 짧은 수필이나 에세이도 많이 썼는데, 지난 해 ‘긴 호흡의 책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세우고 제 생애 지나간 일들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격동기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 대중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지요.

### 이번 책은 집필기간이 길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9월 초에 시작해서 2013년 6월 말에 탈고했습니다. 연필 20자루 정도를 직접 깎아서 200자 원고지 2,300여 매에 꼭꼭 눌러 썼지요. 그걸 아내(김로신)가 컴퓨터 문서로 만들고 교정 작업도 했습니다. 자서전 표지에 있는 제 초상화도 2년 전에 아내가 그린 겁니다. 책이 두껍지만 읽다보면 한 편의 대하소설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한 성우 고은정 씨가 “60년 전에 내가 쓴 드라마 ‘장녀’를 잊을 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제가 1947년부터 글을 썼으니까 실력이 부끄럽지는 않답니다. (웃음)

### 자서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 10대 시절을 보낸 기록, KBS 아나운서로 일하다 6·25가 일어나면서 겪은 일들, 일본 도쿄와 오키와에서 UN총사령부방송에 근무할 때의 일, 1972년 불혹이 넘은 나이에 시작한 미국 이민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 제목이 ‘고향이 어디십니까?’입니다.

어린 시절 개성, 함흥, 평양 등에서 공부한 저는 오랫동안 글을 쓰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표준어를 쓰지만 가끔 평안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십니까?”하고 묻습니다. 그 말이 요즘 그림고, 1990년에 평양을 방문했는데 고향에 대화할 사람이 없더군요. 산천에 사람과 인정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고향’인데……. 명절 때 한국 TV를 봐도 “어떻게 하면 빠르고 편하게 고향에 갈까?” 하는 것만 다뤄지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찾아갈 수 없는 절망감이 강해서 붙인 제목입니다.

### ‘고백적 기록’이란 부제에도 의미가 있나요?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국비장학생으로 다니던 평양사범학교를 중퇴하고 경성역에서 역부로 일을 했습니다. 해방 후 우연히 방송에서 “다발 다발 꽃다발 엮어보세…….”하는 낭송시를 듣고 방송을 동경하게 됐고, 2년간 한국어 공부를 해서 1947년 7월에 서울중앙방송국 성우 특1기로 입문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뽕뽕이 의 모험’이란 아동극의 아저씨 역할을 맡았어요. 그걸 듣더니 누가 “아나운서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학력을 속이고 시험을 봤고, 최고 득점으로 그해 9월 KBS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고백입니다.

학력을 속였다는 것이 항상 마음에 ‘짐’이었지요. 이제 후련합니다. 도전하며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니까 ‘고백적인 기록’이라는 표현이 알맞다고 할까요? 그저 ‘이런 사람도 있었다. 사범학교 중퇴지만 아나운서로서 훌륭했다. 고생했지만 열심히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 짧은 기간이지만 중앙방송국에서 근무할 때도 큰 족적을 남기셨더군요.

1960년대에 민재호, 전인국, 윤일구, 윤용로 아나운서 등 실력 있는 선배들이 많았는데, 어린 저에게 중요한 방송을 할 기회가 주어지더군요. 이승만 대통령 지방 순시 수행 기자, 김구 선생 장례식 실황중계, 6·25전쟁 남침 제1보 방송, 9·28 서울수복 제1보 방송 등 역사적인 순간에 제 목소리가 전파를 탔습니다. 그 외에도 라벨의 ‘볼레로’ 초연 중계, 라디오 성우, 영화 내레이터, 300여 편의 라디오 드라마 집필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 어쩌다 고국을 떠나게 되셨습니까?

6월 24일 밤 숙직을 하다 25일 새벽 6시에 북한의 남침을 알리는 ‘임시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이후 공산군이 점령한 방송국에서 극적으로 탈출해 숨어있던 정동 방송국이 파괴된 탓에 연희통신소에서 서울수복을 알렸고, 당인리통신소에서 일을 할 때 미국인 메튜가 “월터 크로카이트 목소리 같다”며 일본행을 권했습니다. 22살에 한 달 예정으로 갔는데 KBS의 방송시설 복구가 늦어지면서 결국 20년간 UN군총사령부방송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명곡의 향연’이라는 클래식 음악방송을 일본에서 전화선을 이용해서 KBS로 송출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2011년 5월에 <클래식, 내 마음의 발전소>라는 에세이집도 냈을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제 삶에서 클래식 음악의 비중은 참 큰 것 같습니다.

### 불혹을 넘긴 나이에 미국행을 택하신 이유도 있나요?

전쟁 중에 KBS 후배 최창숙 아나운서(편집자 주: HLKZ-TV로 이적해 최초의 TV 방송 여자 아나운서로 활약)와 결혼했고 일본에서 3남매를 낳았습니다. 자녀들이 당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44살이 되던 해에 LA로 향했고요. 해변에서 10년간 햄버거를 팔았습니다. 그 때 제가 살던 마을이 보수적이라 동양인에 대한 배척이 심했는데, 7년쯤 지나니까 모두 저를 보면 친근하게 “하이, 미스터 위!”하고 인사하더군요. 그 체험담을 수필로 써서 처음으로 책을 냈는데, 그게 1979년에 나온 <하이 미스터 위>입니다.

### 책을 또 여러 권 쓰셨지요?

이후 서점 운영, 지역 신문 제작 등을 했고 LA의 한 월간 신문에 위대한 인물의 삶을 다룬 글을 5년간 연재했는데, 그 60편을 모아 2004년 10월에 <5분 인물전>란 책도 냈습니다. 또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처음 참가할 때 고故 김규환 작곡가가 지은 ‘올림픽의 노래’가 잊혀진 게 아쉬워 <잃어버린 노래>라는 글을 썼고, 1993년에 그걸 포

지난 10월 19일 동교동 가톨릭청년문화회관에서는 위진록 아나운서의 86년 인생을 다룬 자서전 <고향이 어디십니까?(모노폴리)>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최 측인 한국아나운서클럽(김동건 회장)과 평양사범동창회, 그리고 방우회(한영섭 회장) 회원, 한국방송인협회 최창봉 이사장, 배우 최은희, 성우 고은정·천선녀를 비롯해 친지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민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새내기 박연경(MBC) 아나운서는 대선배의 글 ‘아내의 얼굴’을 낭독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에는 ‘KBS 원로 아나운서 위진록의 고백적 기록’이란 부제가 달려 있다. 미국 LA에 거주하며 수필가, 방송인,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고 싶었을까?

함해 수필집을 엮었지요. SBS 드라마 ‘모래시계’가 인기였던 1994년에는 수필집 <낙타의 속눈썹>도 냈습니다. 낙타는 속눈썹이 2개입니다. 모래를 막아야 하나까요. 폭력적인 드라마에 열광하는 게 안타까웠지요. 또 미국에서 장소연 작가와 1998년 5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시사, 소설, 연극 등을 다루는 방송을 진행한 후 <위진록의 커먼센스>라는 방송 수필집을 냈지요.

### 꾸준히 고국에서 책을 출판하는 이유도 있습니까?

해외에 있어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또 평소 사회 현상에 관심이 많아 멀리서, 가까이에서 우리나라를 걱정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게 고향을 잊겠습니까?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통일, 아나운서 후배들의 처우 개선 문제 등 관심이 많지요.

### 후배들에게도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많으시지요?

클럽회보를 통해서 고국에 있는 아나운서들과 소식을 나누니 기쁩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후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면 배우, 캐릭터, 주제 모두 비슷합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아나운서들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했던 것처럼 후배들도 다방면에서 재능을 살렸으면 합니다.

글 / 유혜진 객원기자(eternityjw@naver.com)

| 알림 |

**고맙습니다**



최명운(전 KBS)  
20만 원



이정애(전 TBC)  
위진록 자서전 50만 원 구입



김성호(전 KBS)  
30만 원

**축하합니다**

박사임(KBS) 12월 14일 게임업체 대표와 혼인  
서은선(전 MBC) 11월 23일 딸 이정은양 혼인  
장수연(KBS) 11월 9일 사업가와 혼인

**조의를 표합니다**

김병찬(전 KBS) 11월 24일 부친상  
지영서(KBS) 11월 9일 부군상  
김미희(전 KBS) 11월 5일 부친상  
최은경(전 KBS) 10월 22일 부친상  
백명순(전 MBC) 10월 20일 시모상

**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